

# “해남 독수리봉 고분군은 4세기 마한 수장 무덤”

## 북일문화권 마한시기 유적 확인 현장자문위 발굴조사 성과 공개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독수리봉 고분군이 철기유물을 소유한 4세기대 마한 수장의 무덤으로 밝혀졌다.

해남군은 지난 24일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고분군’ (전남도 문화재자료 233호) 발굴조사 현장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개월여 간의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재단법인 마한문화연구원의 발굴조사 결과 북일문화권 마한소국 재지수장(在地首長) 무덤을 최초로 확인했다. 독수리봉고분의 축조집단이 해로를 관장하며 주변 집단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성장한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북일면 일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고형고분인 방산리 장고봉고분을

비롯해 용운리 용운고분, 신월리고분, 방산리 발삼고분 등 5~6세기대의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북일문화권의 마한시기(4세기) 유적이 처음 확인됨으로써 해남지역 고분문화의 변화양상을 밝힐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고 5~6세기 외래양식 출현의 배경을 이해하게 된 점이 최대 발굴 성과로 꼽히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분은 총 3기다. 고분의 중심에는 목관묘(목관묘) 계통의 중심무덤, 고분 주변에는 전용 옹관 또는 일상용 토기를 이용한 옹관묘를 배장해 한계를 뚜렷하게 구분했다.

1호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매장시설은 중심묘인 목관묘 1기만 확인됐다. 봉토를 쌓는 과정에서 무너짐 방지를 위한 작은 할석을 촘촘히 깔아 보강하는 독특한 구조가 파악됐다. 전체규모는 장축 길이 13.7m, 단축길이 13.2m, 최고높이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 고분군

2m이다. 중심묘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113cm, 깊이 45cm이다.

2호분은 1호에 비해 낮은 서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매장시설은 중심묘 목관묘 1기와 봉토 끝자락에 추가된 옹관으로 구성된 배장묘 3기, 그 주변에서 확인된 매납유구 1기가 확인됐다. 전체규모는 장축길이 12m, 단축길이 9.5m, 최고높이 2.1m이다. 중심묘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90cm, 깊이 45cm이며, 의례행위와 관련된 시설로 판단되는 매납유구는 짧은목단지 3점, 철낫이 출토됐다.

3호분은 1호와 2호 사이에 위치하며 전체적으로 삭평되고 목관묘 1기만 조사됐다.

해남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일면 일대 정밀지표조사 과정에서 독수리봉 고분군이 위치한 바로 옆 능선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집단고분군이 확인돼 추후 조사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취업희망 여성’ 직업훈련생 모집 영암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영암군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생을 과정보선 선착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업교육훈련은 △크리에이티브디자인전문가양성△실버케어관리사△경리실무자양성△취업지원상담사양성 등 4개 과정으로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및 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력 양성 교육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비롯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기업체 지원사업 등 문의는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061-463-9972-3)로 하면 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 대표음식점 100선 특별 위생교육 영암군, 선진 음식문화 정착

영암군이 ‘영암 대표음식점 100선’을 내놨다.

지난 22일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100선에 선정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표음식점 선정과정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친절서비스 개선과 위생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영암 대표음식점 100선’은 미식관광 수요에 맞춰 문자 설문조사를 통해 추천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지답사와 타당성을 검토해 엄선했다.

군은 먹거리 콘텐츠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미식관광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영암’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시설개선지원 및 메뉴 개선 컨설팅 등 미식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 1004점 농업대학 69명 입학 신안군, 친환경 농업 선도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1004점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농업대학은 2개과정(친환경농업·온라인마케팅)에 총 69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청년 농업인이 많이 신청한 온라인마케팅과정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SNS를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판매하는 실천과정으로 운영한다.

친환경농업과정은 실제 적용가능한 이론과 현장교육을 통해 영농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강진군, 16일부터 총 14회차



강진군 농어촌개발추진단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강진마을교육공동체 연합회’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신활력아카데미 마스터과정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강진커뮤니티센터에서 △유튜브 시장의 이해와 나만의 유튜브 채널 만들기 △영상콘텐츠 리스트업 및 스토리보드 구성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 및 편집 △유튜브 알고리즘과 썸네일 제작 △채널 홍보 마케팅 △디지털 리터러시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디지털 북 △메타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이 총 14회 진행된다.

이후 마을학교 학생들과 함께 강진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상영하는 ‘성과 공유회’를 열어 교육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한편, 각 채널에 게시해 강진 홍보에 동참할 예정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 무안군 봄맞이 대청소

무안군이 이달 말까지 봄맞이 일제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과 관계기관, 공무원이 함께하는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일 읍·면 공무원 100여 명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대청소를 통해 무단투기 쓰레기 10톤을 수거했다.

무안군 제공

# 무안군, 전군민 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3종 추가 총 24종

무안군(군수 김산)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지난 20일부터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등 총 24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올해부터 늘어난 고령자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담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한 △사회재난 사망 총 3종목을 추가해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 고용부 목포지청, 산업재해 적색경보

### 중대재해 전년 대비 250%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관내 사업장의 빈번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책임자 엄중처벌을 예고했다.

26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올해 관할지역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0% 증가했다.

목포지청은 최근 안전보건공단과 실무

자 회의를 갖고 합동으로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하고, 작업 전 안전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사 또는 작업을 진행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이나 소규모 사업장, 소액공사(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무안군청 안전총괄과(061-450-581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김행민 기자

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신호수(유도자) 등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할 예정이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봄철 환절기 사업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책임자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통해 위법사업장 7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2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송지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신안군 ‘섬 유채꽃 축제’

4월8~22일

신안군 팔금면은 ‘황금빛으로 물드는 유채섬’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8~22일 ‘팔금 섬 유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53ha의 유채꽃밭이 황금빛으로 뒤덮여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유채꽃축제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관람로와 꽃밭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을 곳곳에 설치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하나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축제기간 팔금일주를 할 수 있는 자전거 투어와 아마추어 사진대회, 학생 사생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팔금의 꾸지뽕·감·천일염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향토음식점 부스를 설치해 팔금갈포래극밥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장으로 가는길은 차편으로 목포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팔금면 유채꽃축제를 즐기고 안좌면 퍼플섬 등을 구경할 수 있는 관광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업 팔금면 유채꽃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축제를 통해 팔금면을 널리 알리고 지역 축제가 전국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